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남북 음악공연교류 분석*

하승희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전문연구원)

1. 서론
2. 남북 음악공연교류의 양상과 특징
3. 2018 삼지연관현악단 방남공연 「우리는 하나」
 - 3.1. 방남 공연 배경
 - 3.2. 방남 공연 레퍼토리
 - 3.3. 방남 공연 출연자
4. 2018 남북 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평양공연 「봄이 온다」
 - 4.1. 평양 공연 배경
 - 4.2. 평양 공연 레퍼토리
 - 4.3. 평양 공연 출연자
5. 결론

이 글은 2018년 진행되었던 남북 음악공연교류를 분석하여 남북 음악교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평창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 계기로 진행된 남북 음악공연 교류에서는 먼저 레퍼토리 측면에서 과거와 같이 통일노래 및 계몽기가요의 주요 레퍼토리를 반복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남북관계의 특수

* 본 논문은 2019년 6월 24일 남북문화예술교류포럼 발표문 <남북 음악교류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고찰: 2018년 남북 음악교류 공연을 중심으로>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성과 한반도문제의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음악교류 또한 불안정하게 진행되었다. 음악공연교류는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급박하게 마련되었으며, 정치적 행사에 앞선 일회성 공연으로 지속성을 가지기 힘든 문제가 과거에 이어 반복되었다. 북한체제 특성과 국가보안법의 존속에 따라 새로운 레퍼토리의 대안이 어려운 점도 존재했다.

그럼에도 다양한 대중가요를 통해 남북관계를 재해석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었다. 향후 남북 음악공연교류에서는 공연교류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고 변화한 통일의 인식과 의미에 따라 교류의 새로운 포맷과 메시지, 그에 따른 레퍼토리의 발굴이 필요하다. 음악공연교류가 정례적인 행사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마련과 함께 공연교류방식 외에 음악을 통한 다양한 교류방법을 모색하고, 일회적 성격의 공연에서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남북문화예술 교류센터와 같은 종합 공간은 과거 교류들과의 지속성과 함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다.

핵심어: 남북교류, 북한음악, 남북정상회담, 삼지연관현악단, 올림픽

1. 서론

2018년 1월 15일 남북은 평창올림픽 계기 「북측 예술단 파견을 위한 남북실무접촉」에서 북측 예술단 강릉·서울 공연 관련 합의(통일부, 2018)를 이루었다. 이를 계기로 성사된 북한의 방남 공연은 국제사회에 내비친 북한의 비핵화의지를 확인하고,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등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렇듯 음악교류는 정치외교문제로 국가 간 경색되었던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변화시키는 소프트파워 역할을 한다.

북한은 공연 구성에서 레퍼토리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

문에 레퍼토리에 다양한 의미를 상징적으로 담아낸다. 이에 따라 북한공연에서 레퍼토리는 북한의 메시지가 함축적으로 반영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남북 음악공연 교류에서도 레퍼토리 선정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나타난다. 레퍼토리 선정문제에서의 관건은 통일의 의미를 담아내면서 정치성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은 레퍼토리 조율을 상호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데, 정치적 내용으로 인한 충돌 등의 레퍼토리 선정문제는 현재까지도 과거 남북 교류의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 음악공연교류는 정치적 문제 해결 외에도 통일의 의미와 인식이 변화함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반영도 요구되고 있다. 한국리서치가 2018년 실시한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반대’에 대한 설문 의견 중 82% 이상은 2030세대였다(한국리서치, 2018; 조정아, 2018: 22 재인용). 또한 최명경 외(2018)가 분석한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의 이슈지각 정도에 따른 유형연구에서는 해당 이슈에 대한 관심도, 중요성, 시급성이 20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세대보다 단일팀 구성과정을 자세하게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직접 찾아보는 등 능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현 사회구조에서의 객관적 불평등이 민감성과 연관되어 해당 이슈를 통해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최명경·조광민·박상현, 2018:91). 이렇듯 2030세대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통일인식에서 다른 생애경험에서 나타나는 세대적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2030세대에게 ‘통일’의 문제는 더 이상 민족이나 당위성의 문제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북한에 공정성과 합리성의 잣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조정아, 2018:22).

이러한 상황에서 음악교류에 대한 인식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2018년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의 방남 공연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인

식을 유형화 한 연구에 따르면, 40-60대가 대부분 속해있는 ‘개방적 수용형’의 경우 북한에 대해 거부감이 별로 없고 동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30대가 속한 ‘체제이미지 고착형’의 경우 음악공연의 콘텐츠 자체가 아닌 정치적인 측면에 치우쳐 평가하였으며, 북한의 공연은 과거에 비해 발전했으나 자신과의 관련성은 찾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다(하승희, 2019:431).

이와 같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세대 간 통일인식이 분화되고 통일의 의미가 변화한 시점에서 통일은 더 이상 민족의 당위성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게 되었다. 남북 음악교류에서 공감대를 이끌고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레퍼토리와 공연구성방식에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첫 남북 음악교류가 진행된 이후 36년이 지난 지금, 과거 음악교류의 재평가와 함께 새로운 음악교류의 방향성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남북 음악공연교류¹⁾를 분석하여 남북음악교류의 특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남북음악교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남북 음악공연교류의 양상과 특징

그동안의 남북관계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기조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남북 음악교류의 성사여부 또한 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남북음악교류는 최초로 진행된 1985년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을 시작으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거쳐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하지

1) 이 글에서 남북음악공연 교류란 기악, 노래를 중심으로 한 무대공연 형식의 공연교류로 보았다.

만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교류가 중단되면서 남북 음악공연교류 또한 중단되었고, 이후 교류 공백기를 거쳐 2018년 평창 올림픽 계기 북한예술단의 방남 공연이 성사되었다.

첫 남북음악교류는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계기로 민족, 전통, 통일을 주제로 동질성 회복에 목적을 둔 행사로 개최되었다. 1999년 이후부터는 민간 방송사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이 공연은 북한에서 진행된 일방향적 공연이었으며, 당시 장비 지원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공연교류의 개최 계기는 정상회담 기념, 정주영 회장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류경정주영체육관 개관기념, 광복60주년 등 주로 남북 공통 행사를 기념 또는 축하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었다. 그동안 진행된 남북음악공연 교류 중 국가와 민간방송사 주도로 이루어진 주요 공연은 다음과 같다.²⁾

〈표-1〉 주요 남북 음악공연교류 목록

연도	공연명
1985	예술공연단 교환방문
1990	범민족통일음악회 송년통일전통음악회
1999	MBC 「제1회민족통일음악회」
2000	남북교향악단합동연주회
2002	남북교향악단합동연주회
2002	MBC평양 특별공연 「오! 통일코리아」
2002	MBC 평양특별공연 「이미자의 평양동백아가씨」
2003	SBS 평양 특별생방송 통일음악회 류경정주영체육관 개관기념공연
2005	광복60주년 기념 SBS특별기획 「조용필 평양2005」
2018	삼지연관현악단 평창동계올림픽 특별공연
2018	북남예술인들의 련환공연무대 「우리는 하나」

2) 주요 남북음악교류 공연 목록은 배인교(2018) 연구의 공연목록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배인교, 2018:73-74).

아래는 남북 음악공연교류 공연의 레퍼토리 중 민요·통일 노래·계몽기 가요를 정리한 목록이다.

〈표-2〉 남북 음악공연교류 레퍼토리 중 민요통일노래계몽기가요

연도	공연명	구분	곡명
1985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단공연 교환방문	민요	울산아가씨, 잣은산타령
		가곡	사공의 노래, 그리운 금강산
		신민요 및 계몽기 가요	눈물 젖은 두만강, 불효자는 웁니다, 찔레꽃, 꿈에 본 내 고향, 삼다도 소식
1990	제1회 범민족통일음악회	민요	수심가, 위음수심가, 자진난봉 가, 사설난봉가, 개타령, 육자 배기, 자진육자배기
	90년 송년 통일전통음악회	민요	민요연곡, 능수버들, 양산도, 신고산타령, 산천가, 회양닐리 리, 배따라기, 정방산성가, 자 진난봉가
		통일노래	통일의 길, 우리의 소원은 통일
1999	SBS 「2000년 평화 친선음악회」	통일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중곡)
1999	MBC 「제1회민족 통일음악회」	통일노래	반갑습니다(서곡)
		민요	진도아리랑
		신민요 및 계몽기 가요	눈물 젖은 두만강, 홍도야 우 지 마라
2000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	민요	아리랑
2002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	민요	아리랑
	MBC 평양특별공연 「이미자의 평양 동백아가씨」	신민요 및 계몽기 가요	애수의 소야곡

2005	광복60주년 기념 SBS특별기획 「조용필 평양 2005」	북한 노래		자장가, 험난한 풍파 넘어 다시 만나네
		계몽기 가요		봉선화, 황성옛터
2018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성공 기원 삼지연관현악단 특별공연			반갑습니다(서곡) 백두와 한라는 내 조국, 우리 민족끼리, 우리의 소원은 통일, 다시 만남시다(종곡)
2018	2018 남북평화 협력기원 평양공연 「봄이 온다」	1차	통일노래	친구여(대중가요), 다시 만남 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종 곡)
		2차	계몽기 가요 연곡	절레꽃, 눈물 젖은 두만강, 아 리랑 고개, 작별, 락화류수, 동 무생각
			통일노래	백두와 한라는 내 조국, 우리 민족끼리, 우리의 소원은 통 일, 다시 만남시다

계몽기 가요 〈눈물 젖은 두만강〉은 레퍼토리 구성에서 자주 등장하며, 서곡으로는 〈반갑습니다〉, 종곡은 〈백두와 한라는 내 조국〉, 〈우리 민족끼리〉, 〈우리의 소원은 통일〉, 〈다시 만남시다〉 등의 통일노래가 남북음악교류 공연의 단골 레퍼토리로 활용되었다. 클래식 합동공연 또한 관현악 〈아리랑〉은 단골 레퍼토리로 등장한다.

최초의 남북음악교류였던 1985년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단공연 교환방문」당시, 남북은 서로의 공연에 대해 상호 전통음악을 지켜나가는 방식에 대해 비난하였다. 음악공연 교류의 취지와는 달리 남북 간 대결구도에서 분단이 가져온 이질성만 확인한 자리였다고 할 수 있다(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2003:99-104). 하지만 이후 진행된 1990년 「범민족통일음악회」와 「송년통일전통음

악회]에서는 민족 공통의 문화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민족 동질성 회복에 중심을 맞춘 레퍼토리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결과, 남북 음악교류는 화해와 통일 지향적 성격으로 변모하였으나 전통음악에만 국한되는 레퍼토리의 한계는 벗어나지 못했다.

이후 1999년부터 민간 방송국의 주도로 음악교류가 활성화되며 대중가수들이 음악교류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레퍼토리 구성에서 민요가 점차 줄어들고 대중음악이 늘어나는 양상은 동질성 회복에서 이질성 극복으로 교류의 취지가 변화하며 서로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3. 2018 삼지연관현악단 방남공연 「우리는 하나」

3.1. 방남 공연 배경

3.1.1. 공연 계기의 변화

남북 음악공연교류는 남북관계는 물론 대내외 정치·외교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그 성사 여부는 정치적 상황과 변수에 따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의 남북 음악공연교류는 남북 공동 행사의 기념 및 축하를 계기로 진행되어왔지만, 2018년 삼지연관현악단 방남 공연의 경우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개최된 공연이라는 점에서, 공연배경의 측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점을 찾을 수 있다. 2018년 삼지연관현악단 방남 공연이 개최되기 이전, 당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이었다. 이때 북한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과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의사를 밝혔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화’의 상징성과 함께 전 세계가 함께하는 국제적 행사였다. 이러한 올림픽

의 취지와 상징성에 따라 북한이 방남 공연을 성사시키고자했던 당시 북한의 행보는 올림픽이라는 평화적 국제행사를 계기로 국면전환과 이미지 쇄신을 시도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방남 공연의 공연명이 「우리는 하나」라는 점에서 공연의 취지와 목적은 동질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공연을 계기로 과거 남북 간 행사로 진행되던 것에서 국제적 행사로 확대되었다.

3.1.2. 공연 기획 및 준비 과정 : 사전 기획공연에서 즉흥적 공연

남북음악공연 교류는 남북 합의에 따라 공연계획이 결정되므로, 공연의 성사여부는 남북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정치적 사안을 앞두고 급박하게 진행되는 공연의 경우, 공연 일정이 특정되지 않고 공연 구성 및 준비기간도 짧고 변수가 많아 공연준비에 부담이 크다. 남북음악공연 교류는 남북 관계 및 남북 간 중대 사안을 담보하는 공연이기에 준비과정과 내용은 더욱 엄격하고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에 공연 기획자는 출연자 및 레퍼토리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처하는 유연성을 필요로 한다.

초기 남북 음악공연교류는 남북 간 우호적 분위기가 형성된 이후 정치적 사안과는 별개로 사전에 기획되어 장기간 준비를 거쳐 공연이 진행되었다. 반면 최근 2018년 진행된 남북 음악공연교류는 과거와는 반대로 남북 간 정치적 행사에 앞서 즉흥적 성격으로 개최된 측면이 강하다. 이에 따라 공연 기획 및 진행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먼저 장소섭외 문제다. 촉박한 일정에 따라 북한이 원하는 공연을 구현할 수 있는 극장 대관이 어려웠다. 삼지연관현악단은 문화교류 특성상 남한의 극장 상황과 규모 외 여러 요건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관현악단의 특성과 공연의 의도를 만족시킬만한 무대를 구성

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강릉공연의 경우 여러 후보지 가운데 전문 공연시설인 강릉아트센터가, 서울공연은 1563석의 객석, 리모델링 계획으로 2월 공연 일정이 없었던 점에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이 최종 결정되었다.³⁾ 무대는 당시 북한 중앙예술단체의 일반적인 공연에서 활용하는 것과 같이 무대 중앙 후면부에 대형스크린과 조각 스크린을 설치해 영상을 적극 활용하였다. 선택가능한 극장이 제한되고 공연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북측은 무대구성에서 기존 문대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다.

두 번째로, 다양한 공연의 시도가 어려운 점이다. 공연을 준비한 북한의 레퍼토리 구성 또한 기존 악단의 연합형태로 악단을 창립하여 각 악단에서 공연해오던 레퍼토리를 주요 레퍼토리로 구성하였다. 북한이 선보인 레퍼토리 중 <세계련곡>과 관현악 <친근한 선율>은 이미 모란봉악단 시범공연에서 발표된 것이었다.⁴⁾

세 번째로 공연 기획 및 준비 과정과 기간의 문제이다. 삼지연관현악단의 서울공연 마지막 무대에는 소녀시대 ‘서현’이 등장했다. 이러한 배경은 당국의 즉흥적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공연 이후 고민정 대변인이 「11:50 청와대입니다.」에서 밝힌 내용이다.⁵⁾

3)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122_0000209976&cID=10701&pID=10700

4) 방남 공연에서 삼지연관현악단이 연주한 ‘<관현악>친근한 선율’ 레퍼토리는 모란봉악단의 2013년 10월 2일 신년경축공연 <당을 따라 끝까지>에서 연주된 ‘외국곡’, ‘경음악과 노래련곡 세계명곡뮤음’, 2014년 5월 23일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경축공연에서 공연된 ‘경음악과 노래련곡 세계명곡뮤음 <세상에 부럼없어라>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5) 유튜브 「11:50 청와대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k09vB7sQI>, 2018년 2월 12일.

고민정 : (상략)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우리 소녀시대 서현 씨가 함께 등장을 해서 (중략) 근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서현인가? 일단은, 그날 그 삼지연관현악단에서 그 노래공연은 다 여자 분들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분이 출연할 경우에는 다시금 편곡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니까.

기 자 : 아 키가 안 맞으니까.

고민정 : 그래서 뭐 우리가 노래방 기계처럼 누른다고 해서 이게 변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많기 때문에 인지도가 좀 높은 분이 나오셔야지 공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 자 : 소녀시대는 다 아니까.

고민정 : 예예. 제가 듣기로도 북측에서도 소녀시대가 굉장히 인기라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다가 서현 씨께서 흔쾌히 응해주신 것 또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북측공연단에서는 이 연습기간이 짧다는 것 때문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왔었지만은 결국은 우리 쪽의 설득으로 인해서 막판에 조율이 된 거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현 씨가 무대 위에 올랐던 것 여러분께 말씀 드릴게요.

기 자 : (상략) 그리고 막판까지 이제 뭐 출연여부조차 조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연자는 굉장히 긴장을 했을 것 같아요. 보통 무대 서보시면 그러잖아요?

고민정 : (상략) 이게 미리 방송처럼 미리 편성된 이런 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남북 간에는 끝까지 조율하고 또 국가대 국가는 남북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상들과도요, 계속 조율을 하기 때문에 이게 었어졌다, 생겼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데 어제 서현 씨가 마지막 피날레를 잘 장식해 준 것 같아서 보기 좋았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소녀시대 ‘서현’의 섭외 이유에 대해 삼지연관현악단과의 합동공연 캐스팅 조건으로 공연관람 대상의 연령층과 남측 및 북측에서의 인지도, 함께 공연하는 북측 가수가 모두 여성인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밝혔다. 이 과정에서 촉박한 일정을 이유로 합동공연을 반대했던 북한 측을 설득해 공연을 성사시켰으며, 국가간 행사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공연 기획과정과 조율문제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당시 북측은 공연의 성공적인 개최에 따른 성과가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공연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하고자 즉흥무대에서 돌발적으로 생길 수 있는 사안을 고려하여 부담감을 표했던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이처럼 합동공연 무대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다소 일방적이고 무리한 기획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급히 마련된 합동공연은 남북의 급박한 정세 속에서 나타난 한계이지만, 이 또한 남북관계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음악공연 교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짧은 기간 내에 국가의 통일정책 기조에 부합하고 행사의 취지와 메시지를 담아내며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사전에 관련 내용에 대한 고민과 준비 없이는 어려운 작업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삼지연관현악단의 방남 공연 피날레에 소녀시대 서현이 등장하는 이벤트성 레퍼토리를 구성한 것은 최대한 합동공연으로서의 의미를 담아내려한 시도였으며, 남북 교류공연이라는 다소 형식적 행사에 긍정적 균열을 내고 교류의 상징적 의미를 높일 수 있었던 기획이었다고 할 수 있다.

3.2. 방남 공연 레퍼토리

2018년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의 방남 공연은 총 두 차례로, 1차 공연은 2018년 2월 9일 강릉 아트센터(단독공연), 2차 공연은 2018년 2월 11일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진행되었다.

〈표-4〉 삼지연관현악단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공연 레퍼토리

번호	구분	제목
1	서곡	반갑습니다
2		흰 눈아 내려라
3	여성중창	비둘기야 높이 날아라(평화의 노래)
4	경음악	내나라 제일로 좋아
5	여성2중창	J에게(이선희)
6	여성독창	여정(웍스)
7	가무	달려가자 미래로
8	관현악 반주와 독창	새별
9	〈관현악〉 친근한 선율 ⁶⁾	아리랑
		검투사들의 입장(Entry of the gladiators)
		모차르트교향곡40번(Mozart symphony No.40)
		튀르키예 행진곡(Turkish march)
		아득히 먼 길(дорогой длинною)
		집시의 노래(Tzigane)
		검은 눈동자(Очи чёрные)
		또까따(Toccata)
		락엽(Autumn leaves)
		가극극장의 유령(The phantom of the opera)
		띠꼬띠꼬(Tico tico)
		차르다쉬(Czardas)
		흑인령감 조(Old black Joe)
		레드강골짜기(Red river valley)
		백조의 호수(Swan Lake)
아이가 태어났을 때(When a child is born)		

		그대 나를 일으켜 세우네(You raise me up)
		스케트타는 사람들의 왈츠(The skater's waltz)
		라데츠키 행진곡(Radetzky March)
		카르멘서곡("Carmen" Overture)
		윌헬름텔서곡("William Tell" Overture)
		나의 해님(O sole mio)
		오랜 우정(Auld lang syne)
		푸니쿨리 푸니쿨라(Funiculi funicula)
		빛나는 조국
10	노래런곡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리벌(패티김)
		당신은 모르실거야(혜은이)
		사랑(나훈아)
		사랑의 미로(최진희)
		해 뜰 날(송대관) 스윙
		다함께 차차차(설운도) 스캣
		어제 내린 비(윤형주)
		최진사 맥 셋째 딸(나훈아)
		홀로아리랑(서유석)
11	여성3중창	백두와 한나는 내조국
12		통일은 우리민족끼리
13	종곡	우리의 소원은 통일
14		다시 만납시다

- 6) 방남 공연에서 삼지연관현악단이 연주한 <관현악>친근한 선물' 레퍼토리는 모란봉악단의 2013년 10월 2일 신년경축공연 <당을 따라 끝까지>에서 연주된 '외국곡', '경음악과 노래런곡 세계명곡뮤음', 2014년 5월 23일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경축공연에서 공연된 '경음악과 노래런곡 세계명곡뮤음 <세상에 부럼없어라>'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3.2.1. 상대국 레퍼토리 구성

국가 간 음악공연 교류는 음악을 통해 상호 이해 증진과 우호친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레퍼토리 구성에서도 두 국가가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공통의 노래를 포함시키는 것이 관례이다. 남북 간 음악공연 교류에서는 민요, 계몽기가요, 통일노래가 주요 레퍼토리였다면, 2018년 방남 공연부터 상대국의 노래를 주요 레퍼토리로 구성하기 시작했다.

먼저 북한은 2018년 삼지연관현악단의 방남 공연에서 남한노래를 연곡형식으로 구성했다. 선곡한 곡의 발매연도를 통해 세대별 취향을 고려하여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곡들을 레퍼토리로 구성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표-5〉 삼지연관현악단 방남공연 남한노래 레퍼토리

번호	발매연도	제목	가수명
1	1966	이별	패티김
2	1975	당신은 모르실거야	혜은이
3	1975	해 뜰 날	송대관
4	1975	어제 내린 비	윤형주
5	1976	최진사 닥 셋째 딸	나훈아
6	1983	사랑	나훈아
7	1984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심수봉
8	1984	J에게	이선희
9	1990	홀로아리랑	서유석
10	1991	다함께 차차차	설운도
11	1996	사랑의 미로	최진희
12	2002	여정	왁스

하지만 이러한 레퍼토리 구성은 북한의 친선공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북한의 친선공연은 우호증진 및 친선교류의 목적에 따라 상대국의 노래를 구성하는 것이 관례적이다. 북한의 대표적인 친선공연 성과라 할 수 있는 1991년 보천보전자악단의 일본공연, 왕재산경음악단의 중국방문공연, 2015년 청봉악단의 러시아공연에서도 상대국의 레퍼토리를 구사한 것을 알 수 있다.

1991년 보천보전자악단의 일본공연에서 일본노래는 대중적으로 유명한 가요, 전통 민요 등으로 구성되었다. 소란부시(ソーラン節)와 야스기부시(安来節)⁷⁾는 일본의 전통 민요이다. 당시 보천보전자악단은 일본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끄는 곡들을 일본어로 불러 현지 일본대중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표-6〉 보천보전자악단 일본방문공연 주요 일본 레퍼토리(1992.9.17.~10.27.)

구분	제목
일본노래	푸른산맥(靑い山脈)
	길동무(みちづれ)
	북부지방의 봄(北国の春)
	쓰가루해협외 겨울풍경(津軽海峡の冬景色)
	야스기부시(安来節)
	소란부시(ソーラン節)
	세토의 새색시(瀬戸の花嫁)
	담배집처녀(タバコ屋の娘)

7) 야스기부시(安来節)는 1688~1704년 경 일본 시마네 현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가 1830년대 선박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노래이다. 이 노래는 1910~20년대 인기를 끌었던 지방민요로 일본 뿐 아니라 한국, 대만, 중국동북부 까지 전해졌다. “安来節,” 世界の民謡・童謡; <http://www.worldfolksong.com/songbook/japan/minyo/yasugibushi.htm>

	원추리 (忘れな草をあなたに)
	어머니(おかあさん)
	님이 그리워(君恋し)
	영경귀 꽃의 노래(あざみの歌)
	저 언덕 넘어서(あの丘越えて)
	오늘도 웃음담고 찾아왔구나(今日も笑顔でこんにちは)
	별빛왈츠(星影のワルツ)

출처: 『조선음악년감 1992』, p. 339. 재구성

1991년 진행한 왕재산경음악단의 중국방문공연에서도 중국노래가 전체 레퍼토리 구성의 1/3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친선관계를 최대한 고려한 레퍼토리라고 볼 수 있다. 종장은 〈조중친선은 영원하리라〉로 끝을 맺으며 친선공연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표-7〉 왕재산경음악단 중국방문공연 중국 레퍼토리(1991.10.15.~10.24.)

구분	형식	제목
중국 노래	여성2중창	사회주의 좋다
	여성독창(림청)	백리에 대한 푸른 봄의 정
	여성독창 (김화숙)	중국이며 나는 그대를 사랑해
		장강의 노래
	여성독창 (장윤희)	사랑의 선물
		갈망
혼성2중창 (최광호, 림청)	친정집 찾아가네	

출처: 『조선음악년감 1992』, pp. 378-379.

2015년은 북·러 친선의 해를 맞아 진행된 공훈국가합창단과 청봉악단의 러시아 공연에서도 러시아노래연곡 <평화를 위하여>⁸⁾와 여성중창 <로씨야처녀노래련곡> 등 러시아 친선공연의 성격에 따라 상대국의 대중적 노래로 구성하였다. 이 곡은 러시아의 대중적인 영화주제가를 묶은 곡으로, 청봉악단 김옥주의 선창으로 시작하여 중창조가 러시아어 또는 원곡가사를 번안하여 방창으로 불렀다. 이처럼 북한은 대외 친선공연의 레퍼토리 구성에서 상대국의 노래를 비중 있게 다루며, 이를 상대국의 언어로 부르는 특징이 있다. 이렇듯 북한은 남북음악교류 공연에서도 기존 친선공연의 관례를 적용하여 상대국의 문화를 배려한 노래구성이나 음악형식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표-8> 공훈국가합창단 및 청봉악단 북러 친선의 해 기념공연 레퍼토리(2015.8.31.)

구분	형식	제목(원제)
러시아 노래	러시아 노래 연곡 <평화를 위하여>	정의의 싸움
		모스크바의 노래
		까추샤
		무명고지에서
		푸른수건
		떠도는 새, 떠날 때는 왔다
		승리의 날
	러시아 처녀노래연곡	처녀는 서있네 (Стоят девочки)
		처녀들은 왜 미남자만 좋아하오 (Зачем вы, девушки, красивых любите)
		좋은 처녀들 (Хорошие девчата)

8) <평화를 위하여>에는 ‘정의의 싸움’, ‘모스크바의 노래’, ‘까추샤’, ‘무명고지에서’, ‘푸른 수건’, ‘떠도는 새, 떠날 때는 왔다’, ‘승리의 날’ 등 러시아 국민을 애국주의 정신으로 단합시키는 노래를 선정하였다(로동신문, 2015.9.2.).

3.2.2. 정치성이 배제된 공연레퍼토리 선곡 문제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 속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통해 경색된 분위기를 타개하고 국면전환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2018년 평창올림픽 계기 방남 공연은 김정은 정권 이후 남북의 첫 음악교류였고 모든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국제행사의 일환이었다. 북한입장에서 당시 공연은 김정은 정권의 첫 국제사회 데뷔 무대이자 제재에 대한 입장과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다. 이에 북한은 방남 공연을 정치적 충돌이 없이 성공적으로 성사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기획 및 진행 과정에서 최대한 정치적 충돌을 막고 원만하게 진행해야 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북측은 과거 답습해왔던 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치적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가사가 없는 기악곡 중심으로 레퍼토리를 구성하고자 관현악단으로 선정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레퍼토리 구성에서도 정치적 문제가 없으면서 자국의 음악예술 성과를 총동원하여 세계보편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무대를 구성하고자 했다. 전 세계에 공개하는 김정은 정권에서의 첫 대외무대인만큼 북한 음악의 진일보한 발전과 변화상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레퍼토리 선정에서는 남한의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대중적인 곡을 선정하였고, 〈세계련곡〉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곡들로 구성하며 국제사회의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이 곡들은 재즈 등 다양한 리듬으로 편곡하였고, 댄스곡인 〈가무〉 형식에서는 한국 걸 그룹을 연상케 하는 의상과 음악적 요소, 무용 등의 다양한 형식을 동원하며 국제사회에 개방성과 자국의 음악적 수준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민요나 민족 악기 등 전통을 부각시켰던 과거와는 달리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보편적인 요소들을 보여준 것은 평창을 계기로 세계무대에서 자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하

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레퍼토리 선곡과 관련해 여전히 정치적 문제가 나타났다. 북측의 레퍼토리에는 <모란봉>과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이 선곡되었는데, 이 중 민요풍 곡 <모란봉>의 가사는 평양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사회주의 건설이 좋을시고”라는 가사가 포함되어 있다.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에는 “태양조선 하나 되는 통일이어라”라는 가사가 적화통일을 상징적으로 내포하는 표현일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모란봉>은 선곡에서 제외되고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은 개사를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렇듯 음악의 해석은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치적, 사상적 문제로 레퍼토리 선정에서 문제가 되어왔다. 이것은 북한의 사전 레퍼토리 제시 또는 협의 없이 공연에 임박해 레퍼토리를 공개해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다. 공연개최 합의 이후 공연기획에도 일정이 부족한 상황에 레퍼토리에 대한 사전 검토 시간은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3.3. 방남 공연 출연자

3.3.1. 북한의 국보급악단 출연

방남 공연에 참여한 ‘삼지연관현악단’의 인원 구성을 살펴보면 당시 공연에 대한 북한의 교류 성사 의지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삼지연관현악단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북측 예술단 공연을 위해 실무접촉 과정에서 북한이 밝힌 악단으로, 실무접촉 이전에 북한 내 삼지연관현악단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는 전무하다. 북한은 이 악단에 대해 2018년 2월 13일자 『로동신문』에서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삼지연관현악단의 오케스트라 인원 구성은 2009

년 창립한 삼지연악단의 기악조가 중심이 된다. 악단에 소속된 가수 대부분은 2015년 창립한 청봉악단 가수로 구성되었으며, 2012년 창립한 모란봉악단(당시) 소속 가수도 포함되어 있다. 방남 공연에서 메인가수 역할을 한 김옥주는 청봉악단 소속에서 2017년 1월 모란봉악단으로 이적하였지만, 삼지연관현악단 가수로 재 영입되었다. 북한은 청봉악단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배우들을 모란봉악단으로 영입하여 대외공연에서 모란봉악단 중심으로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뜻밖에 남북관계의 진전을 계기로 친선교류를 통한 우호분위기 조성에 적합한 악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북한의 대표악단인 모란봉악단은 군 성격의 선전선동 가요가 주요 레퍼토리였기 때문에 정치적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대외공연 전속악단이 필요했고, 이에 가사의 문제로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기악중심에 대외적 교류의 특성에 맞는 대중음악을 연주하는 관현악단을 창립했다고 할 수 있다. 악단 멤버는 교류 상대국의 음악을 구사할 수 있는 다재다능하고 유연한 배우들로 구성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청봉악단의 기존멤버와 더불어, 러시아어 노래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중저음의 목소리로 한류 식 가창기법 및 표현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모란봉악단의 김옥주를 영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당시 국제무대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악단 창립에서 유연성과 즉흥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4. 2018 남북 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평양 공연 「봄이 온다」

4.1. 평양 공연 배경

북측의 방남 공연 이후 우리 측은 답방 형태로 ‘남북 평화협력 기

원 남측 예술단 평양 공연 「봄이 온다」를 기획했다. 이 행사는 “4월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화해와 평화적 협력에 기여”한다는 필요성과 함께 「특사단 방북」(2018. 3. 5.~6.), 「예술단 평양공연 관련 남북 실무접촉」(2018. 3. 20.) 결과에 따라 추진되었다. 이에 2018년 4월 1~3일 총 186명이 방북하여 남북 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태권도 시범단 평양 공연 행사가 성사되었다(통일부, 2018).

이 공연은 남북정상회담의 사전 행사로, ‘봄이 온다’라는 부제는 “남북 관계의 역사적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졌다(박상현, 2018a). 2018년 4월 1일 당시 정부지원단 관계자는 평양 고려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측이 합동공연에서 자신들의 공연 시간을 줄였다. 남쪽 레퍼토리를 많이 하라고 제안한 상황”,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 표현으로 ‘우리 겨레의 심장 뜨겁게 요동칠 수 있도록’ 하는 뭔가를 보여주자고 했다”고 말했다. 공연레퍼토리 중 ‘다시 만남시다’에 대해서는 “북측은 행진곡 풍으로 편곡돼 있다”, “(북측은) 바이올린 트레몰로가 들어간 편곡인데, 운상 감독 편곡은 발라드풍이다. 그래서 합동공연에선 현송월 단장 편곡 두 곡과 운상 감독 편곡 두 곡 중 무엇을 올릴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박상현, 2018b). 이 행사는 4월 5일 MBC에서 녹화방송으로 방영되었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공연장에 직접 참석하여 더욱 화제가 되었다. 평양 공연의 명칭은 ‘봄’이라는 상징에 빗대어 남북관계의 새로운 시작, 희망의 의미로 새로운 전환점을 암시했다. 당시 남북 음악공연교류는 국가 간 진행되는 정치적 본 행사에 앞서 진행되면서 관심을 주목시키고 국가 간 우호분위기를 조성하는 매개로 활용되었다.

공연 합의부터 개최까지 촉박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측 또한 새로운 공연구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의 공식적인 행사에 따라 급박하게 돌아가는 사정을 고려했을 때, 사전 공연구성

형식에 대해 고려할 시간은 물론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연구성, 레퍼토리에 대한 새로운 포맷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다음은 2018년 평양공연의 우리 측 예술단 음악감독을 맡았던 ‘윤상’ 음악감독의 인터뷰 내용⁹⁾이다.

〈표-9〉 2018 방북공연 이후 윤상 음악감독 인터뷰 내용

Q. 평양공연, 음악 감독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앵커 : 그럼 정부에선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어떤 일을 해달라고?

윤상 : 어, 일단은, 이번 공연이, 사실 음악감독은 그 작품에 따라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뭐 선곡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힘든 일이었고요. 일단 중요한건 약 일주일도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위대한 탄생’이라는 우리밴드, 한 밴드에 (앵커 : 조용필 씨.)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물론 조용필 씨는 자기 팀이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여덟 분의 가수 분들이 다 노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각자. 물론 이선희 선배 같은 경우도 자기의 밴드가 있지만 다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음악적 현실적인 부분을 조율 하는 게 가장 급선무였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함께 할 노래에 대해서 편곡을 또 하루 이틀 만에 끝내야 하는 역할도 있었고요.

앵커 : 그 하루 이틀 만에 편곡해가지고 바로 연주가 됩니까? 물론 프로들이지만...

윤상 : 사실은 좀 불가능한데, 그렇게 해서 결국 좀 무산된 일도 있었고요.

앵커 : 아 그런가요. 예. 어떤 게 무산되었나요?

윤상 : 사실 이제 ‘다시 만나요’ 라는 곡과 ‘우리의 소원’ 같은 곡을 우리 측의 편곡에 삼지연관현악단이 풍성한 스트링으로 좀 같이 연주를 했으면 하는 게 저희의 욕심이었는데.

(앵커 : 그게 잘 안 됐군요.) 아무래도 그게 그분들 서울공연 보면 악보가 안 보여요 무대 위에.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는 뜻 같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번에 너무 기한이 빠듯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다음번 기회가 된다면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9) JTBC뉴스, 「인터뷰: ‘평양 3막4일 이야기’ 윤상 음악감독」, 2018년 4월 9일.

‘윤상’ 음악감독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방북공연은 공연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레퍼토리 선곡권이 주어지지 못했으며, 인원의 제한과 일주일이라는 촉박한 시간 안에서 음악적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조율해야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같이 정부주도 남북교류관련 행사의 특성 상 공연기획 제작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기존 포맷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성의 한계가 나타난다. 이에 따라 대중가수들의 정치성에 배제되지 않는 자신의 대표곡이나 통일, 평화와 관련된 본인의 곡을 선곡하여 구성하는 한계는 여전했다. 이와 같이 준비시간의 부족으로 공연 구성과 진행 관련 다양한 시도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4.2. 평양 공연 레퍼토리

4.2.1. 통일노래와 계몽기가요의 고정적 레퍼토리 탈피 시도

과거 공연부터 현재까지 레퍼토리구성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하나 됨을 노래하는 통일노래이다. 최근 국민들의 세대별 통일인식의 분화로 인해 민족의 동질성은 더 이상 통일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없다지만, 분단국가에서 통일을 주제로 한 합동공연에서 하나로 통합과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의미하는 ‘통일’이라는 키워드는 빼놓을 수 없다. 이에 서곡은 만남을 이야기하고 종곡은 다음을 기약하거나 하나의 민족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노래를 전원 합창으로 배치한다.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로는 해방 이전, 문화의 분화가 일어나기 이전 시기 노래인 민요와 계몽기 가요가 단골 레퍼토리로 등장하였고, 이러한 레퍼토리 구성은 과거부터 계속 반복되어왔다.

하지만 2018년 이루어진 공연에서는 새로운 레퍼토리를 발굴하고

자 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8 남북평화협력기원 평양공연 봄이 온다」에서는 윤연선 곡(1975)인 〈얼굴〉이 합동공연 곡으로 활용되었고, 조용필의 〈친구여〉를 종곡으로 구성했다. 두 곡은 모두 ‘그리움’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 두 곡들은 사랑하는 이와 친구를 그리는 곡이지만, 가사를 남북관계로 확장하여 넓게 해석한 것이다. 이와 같이 2018년 방북공연에서 새롭게 발굴된 레퍼토리들은 서곡, 종곡에서 남북친선의 의미를 담아 통일노래를 부르던 관례에서 벗어나, ‘통일노래’라는 범위를 확장시켜 기존 곡들을 새롭게 해석하였다. 이와 같이 ‘통일노래’라는 주제를 ‘통일’, ‘우리민족’의 키워드가 아닌 ‘그리움’ 등의 다양한 주제의 키워드를 발굴하여 해당키워드를 표현할 수 있는 음악들을 발굴하는 것이 남북음악교류 공연에서 새로운 작업이 될 수 있다.

이밖에 북한 노래를 레퍼토리로 선곡하기도 했다. 소녀시대 서현은 보천보전자악단 김광숙의 대표곡 〈푸른 버드나무〉를 불러 주목을 끌었다. 이 곡은 가사 내용에 사상성이 드러나지 않으며, 당시 북한 내에서 인기를 끌었던 곡으로 알려졌다.¹⁰⁾

10) 우리 측 예술단이 방북공연에서 북한노래를 부른 사례로 2003년 통일음악회에서 가수 조영남이 <심장에 남는 사람>, 2015년 평양에서 개최된 가수 조용필 공연의 경우, 단독공연 특성상 대부분 자신의 대표곡으로 선곡한 가운데 북한 노래 <자장가>, <힘난한 풍파 넘어 다시 만나네>를 레퍼토리에 포함시킨 사례가 있다.

〈표-10〉 「2018 남북평화협력기원 평양공연 봄이 온다」레퍼토리 목록¹¹⁾

번호	구분	제목
1	석예빈 외	집으로 가는 길
2	정인	오르막길
3	알리	평평
4	정인, 알리	얼굴(2차 김옥주, 송영 출연)
5	서현	푸른 버드나무
6	레드벨벳	1차 : 빨간맛, Bad Boy 2차 : 빨간맛
7	강산에	1차 : 라구요, 명태 2차 : 라구요. 넌 할 수 있어
8	최진희	사랑의 미로, 뒤늦은 후회
9	백지영	충 맞은 것처럼, 잊지 말아요
10	이선희	1차 : J에게, 알고 싶어요, 아름다운 강산 2차 : J에게(김옥주 듀엣), 아름다운 강산
11	YB	1차: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나는 나비, 1178 2차 :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1178
12	삼지연관현악단	계몽기가요 련곡 질레꽃, 눈물 젖은 두만강, 아리랑 고개, 작별, 락화 류수, 동무생각
13	조용필	1차 : 그 겨울의 찻집, 꿈, 단발머리. 여행을 떠나요 2차 : 친구여, 모나리자
14	삼지연관현악단, 백지영, 정인, 이선희, 알리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 우리 민족끼리, 우리의 소원은 통일, 다시 만남시다

11) 레퍼토리 목록은 배인교(2018) 연구의 공연목록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배인교, 2018:70). 1차 공연은 동평양대극장, 2차 공연은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진행. <표-9> 레퍼토리 목록은 2차 공연 기준으로, 1차 공연 순서는 1-2-3-4-9-7-11-6-8-10-13-5-전원(친구여, 다시 만남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순으로 진행

4.2.2. 공연취지와 상징에 맞는 대표곡 선곡

2018년 방북공연 「봄이 온다」에서 출연진들은 자신의 대표곡 중에서도 최대한 평화통일의 주제에 맞는 레퍼토리를 구성하고자 했다. 또한 방북 경험이 있는 출연진들의 경우, 당시 불렀던 곡목으로 과거 방북경험을 회상했고, 앞서 삼지연관현악단이 방남 공연에서 준비했던 남한 곡을 답가차원에서 다시 부르는 형식으로 레퍼토리를 구성했다.

오프닝무대는 김광민의 〈집으로 가는 길〉을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연주와 가수 정인의 허밍으로 구성했다. 레퍼토리의 서곡은 〈반갑습니다〉 등의 통일노래로 구성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노래를 서곡으로 구성한 것은 새로운 레퍼토리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아래 윤상 음악감독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집으로 가는 길〉의 선곡은 음악감독의 의도에 따라 음악을 선율로 공감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배치하고 기존 성악곡을 허밍으로 대체한 것을 알 수 있다.

〈표-11〉 2018 방북공연 이후 윤상 음악감독 인터뷰 내용

앵커 : (생략) 맨 앞에 피아니스트 김광민 씨가 ‘집으로 가는 길’을 연주하고 정인 씨가 ‘오르막길’ 허밍도 있다가 ‘오르막길’로 올라갔잖아요. 그것은 특별히 전략을 세워둔 오프닝인가요?

윤상 : 그건 ‘음악감독’으로 제가 좀 욕심을 부려서 관철시켰던 부분인데요. 처음에 사실 우리 공연 ‘봄이 온다’의 오프닝은 석예빈이라는 무용수가 열어줬어요. 이어서 우리 가수들이 등장해야 하는데 저는 ‘춤’은 ‘언어’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 ‘첫 곡’만큼은 언어가 담긴 곡이 아니라 어떤 음악이 정말 만국 공용어가 되려면 ‘멜로디가 선율로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떠오른 게 김광민 씨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중략)

레퍼토리 중 가수 정인의 〈오르막길〉 또한 남북음악교류 공연의 상징성을 잘 살린 곡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오르막길〉의 가사이다. 이 곡은 2012년 5월 30일 발매된 ‘2012 월간 윤종신 6월호’에 수록된 곡이다.¹²⁾ 곡의 가사는 앞으로 힘들어질 시간을 가질 사람들에게 희망보다는 각오를 말하는 현실적인 내용이다. 이 곡을 선정한 배경에 대해 인터뷰에서 윤상 음악감독은 가사 내용이 남북관계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곡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JTBC, 2018).

〈표-12〉 정인 〈오르막길〉 가사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두자
 오랫동안 못 볼 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엔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한걸음 이제 한걸음일 뿐 아득한 저 끝은 보지마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사랑해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기억해 혹시 우리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 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엔 만나 오른다면

(중략)

우린 결국엔 만나 크게 소리 쳐 사랑해요 저 끝까지

12) 노래: 정인, 윤종신, 작곡: 이근호·윤종신, 작사: 윤종신, 편곡: 조정치

이 외에도 강산애의 <라구요>, YB밴드 <1178>¹³⁾은 실향민의 사연, 한반도 통일의 염원을 주제로 한 곡으로, 대중가수들의 대표곡 중에서도 공연의 의미에 맞춰 곡을 선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 조용필 <친구여>, 이선희 <J에게>는 과거 교류에 참여했을 당시 불렀던 곡이며, <J에게>,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는 삼지연관현악단이 방남 공연 시 레퍼토리로 구성했던 노래이다. 당시 한국의 대중가요 지표를 보여줄 수 있었던 곡은 레드벨벳의 <빨간맛>, <Badboy>였으며, 북한 내 한류를 고려한 레퍼토리 구성으로는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잊지 말아요>, 알리 <핑핑> 등이 있다. 이와 같이 기존 대중가요 가사의 의미의 재해석을 통해 상징성을 부여하여 레퍼토리로 활용이 가능하다.

공연의 레퍼토리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최진희가 부른 장덕의 <뒤늦은 후회>이다. 다음은 방북공연 후 가수 최진희의 인터뷰 내용이다.

〈표-13〉 2018 방북공연 이후 가수 최진희 인터뷰 내용

<p>최진희 : (생략) 또 첫 공연 끝나고 나서는 김정은 위원장님이 오셔서 <뒤늦은 후회>라는 노래 잘 들었다고 너무 인상 깊었다고 고맙다고.</p> <p>앵 커 : 그러니까요. 그게 1차 공연 끝나고 나서 내내 최고 화제가 됐던 곡이 최진희 씨가 부른 <뒤늦은 후회>였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찾아와서 ‘고맙다, 그 노래 불러줘서 고맙다.’ 이렇게 인사를 따로 한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p> <p>최진희 : 사실 제가 <뒤늦은 후회>라는 노래가 제 노래도 아니고 들을 시간도 별로 없었고요. 그런데 이 노래는 ‘최진희가 불러야 된다.’ 그렇게 요청이 왔대요.</p> <p>앵 커 : 북에서 요청이 딱 찍어서 왔대요? ‘최진희 씨가 뒤늦은 후회, 현이</p>
--

13) 이 곡은 2006년 발표한 윤도현 작사·작곡의 곡으로, ‘1178’은 한반도 최북단에서 최남단의 직선거리 1178m를 뜻하고, ‘우리는 하나’라는 메시지와 함께 우리의 손으로 통일을 만들어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와 덕이의 뒤늦은 후회를 불러주세요’ 이렇게?

최진희 : 네. 그래서 왜 내가 이걸 불러야 되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 그냥 북에서 이걸 불러달라 그랬다.’ 그래서 듣고 간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 이유를 알게 됐죠. 왜 내가 이걸 불러야 했는지를. (웃음) 이유를 모르고 불렀어요, 사실은.

앵 커 : 이유도 모르고 부르고 원래는 잘 아시는 곡도 아니었고 그런데 부르고 나서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좋아하는 노래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최진희 : 네.

이 노래는 1985년 혼성듀오 ‘현이와 덕이’가 발매한 2집 앨범에 수록된 곡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선곡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지도자의 신청곡으로 레퍼토리를 구성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와 같이 음악공연 교류 시 곡을 직접 선곡하여 요청하는 것은 새로운 레퍼토리 구성방식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CBS, 2018).

4.3. 평양 공연 출연자

4.3.1. 국악인에서 대중가수로의 변화

남북음악교류 공연의 레퍼토리 구성이 과거 민족적 특성이 강한 민요나 전통음악 위주 공연에서 대중음악으로 변화함에 따라 출연자 또한 국악인에서 대중가수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1985년 당시 음악 관련 출연자는 판소리 안숙선, 바리톤 김성길, 소프라노 이규도, 가수 김정구, 김희갑, 하춘화, 나훈아 등이었다. 이후 1990년 범민족 통일음악회의 서울전통음악연주단과 평양민족음악단 또한 판소리와 국악기연주자, 성악가와 오케스트라연주자, 트롯트가수 등으로 진행되었다. 1998년 이후 1999년 진행된 남북음악교류에서는 핑클 쟈스키스 등의 대중가수와 설운도, 최진희, 태진아, 패티김 등

의 트로트가수들이 참여했다. 같은 해 MBC 제1회 민족통일음악회에서 남한은 신형원, 안치환, 김종환, 오정해, 현철, 코리아나 등의 가수가 참여했고, 북측은 보천보전자악단과 왕재산경음악단 소속 가수들이 합동공연 형태로 참여했다. 이후 2018년 북한의 방남 공연에서는 삼지연악단이, 우리 측의 방북공연에서는 정인, 알리, 백지영, 강산에 YB, 레드벨벳, 최진희, 이선희, 조용필 등의 대중가수로만 구성되었다.

4.3.2. 방북공연 경험자들의 재출연

1999년 이후 민간방송국 주최 남북 대중음악 교류에 참여한 남한의 주요 가수들은 2018년 방북 공연에 주요 출연자로 참여하였다. 가수 최진희는 1999년 12월과 2002년 9월 평양을 방문했고, YB밴드는 2002년 MBC 평양특별공연, 가수 조용필은 2005년 8월 평양 단독공연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가수 이선희 또한 2003년 SBS 통일음악회에서 <아름다운 강산>, <J에게>를 불렀다. 이렇게 과거 방북공연에 참여한 경험자들을 재출연시켜 공연무대에서 과거방북경험 시 합동공演的 경험을 바탕으로 친근감을 형성하여 공연에 연속성을 부여하였다.

삼지연관현악단의 방남 공연에서 가수 이선희와 북측 가수 김옥주는 남한노래 <J에게>를 함께 불렀는데, 이는 우리측 예술단의 방북공연 이전 진행된 삼지연관현악단의 방남 공연에서 김옥주가 남한노래 <J에게>를 부른 것에 대해 원곡자 이선희의 답가 차원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때 이선희가 김옥주와 함께 <J에게>를 부른 것은 과거 남북가수가 함께 선 무대에서 통일주제 노래만 부르던 관례를 벗어난 레퍼토리 구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4.3.3. 북한 내 한류를 반영한 출연자 섭외

레퍼토리 중 가수 알리의 〈핑핑〉은 2014년 음원 발매 이후 중국 인터넷에서 음원이 발매된 계기로, 중국을 통한 북한 내 한류를 염두에 둔 선곡이었다고 밝혔다(YTN, 2018).

〈표-14〉 2018 방북공연 이후 가수 알리 인터뷰 내용

앵커 : 그 곡을 선곡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그 노래를 북한에서 안다고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본인 생각이었나요, 아니면 주최하는 사람들의...

알리 : 이게 제 예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2014년도에 핑핑을 앨범을 냈는데 그때 제가 중국 인터넷에서도 제 핑핑 음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중략]

알리 :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중국에서 오픈된 제 노래를 북한분들께서도 알 수 있지 않으실까 싶어서 한번 불러드려봤어요.

이처럼 레퍼토리 선정에서도 북한 내 한류를 염두에 두고 선곡을 한 사례처럼 실제 남한의 대중음악은 장마당을 통해 북한 내 유입되고 있다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알려져 왔다. 2012년 모란봉악단의 창립 또한 북한의 새 세대들의 취향변화를 의식해 창립된 악단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현재 북한 내 장마당을 통해 한류를 포함한 외부문화가 유입되며 북한의 문화적 취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북한의 엄격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노래는 2000년대 초의 경우 북한에서 제작한 악보집과 영화, 남북음악교류, 불법 테이프 등 제한적으로 유입되다가 최근에는 USB를 통해 남한의 아이돌과 걸 그룹 동영상 등이 확산되어 북한 내 젊은 층 사이에서 일상의 문화로서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민경찬, 2018:22-23). 이와 같이 북한 내 자리 잡은 한류현상에 따라 남북음악 교류에서도 북한 내 한류를 반영하여 출연자를 섭외한 것을 볼 수 있다.¹⁴⁾

5. 결론

이 글은 2018년 진행된 북측의 방남 공연, 남측의 방북 공연의 공연 배경, 레퍼토리, 출연자 분석을 통해 남북 음악공연교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북측의 방남 공연 배경 특징으로는 남북 행사가 국제적 행사와 연계해 확대된 측면을 보이며, 「우리는 하나」라는 공연명과 같이 남북음악교류에서는 여전히 민족의 화합, 동질성을 주제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변화된 통일여론과 북한에 대한 인식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레퍼토리 측면에서는 통일노래를 서곡 또는 종곡 합창으로 배치하는 구성이나 통일노래, 계몽기 가요의 주요 레퍼토리 활용은 과거와 같이 반복하고 있었지만, 다수의 남한 대중가요를 선곡한 점은 과거 교류와는 다른 양상이다. 북한에서 음악공연교류 시 상대국의 대중적인 곡을 상대국언어로 부르는 것이 관례이지만, 남북 음악공연교류에서 다수의 남한곡이 연곡으로 불린 것은 이례적이기도 하다. 이것은 당시 대외관계 속 북한의 전략적 입장에 따른 남한에 대한 호의적 제스처일 수 있는 한편, 김정은 정권의 변화된 사회분위기와 함께 개방성과 수용성을 보여주려는 시도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선전선동 목적이라는 북한 음악의 특성에 따라 레퍼토리의

14)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잊지 말아요> 또한 북한 내 인기 있는 남한 대중가요로 알려졌다.

정치적 문제가 충돌되는 부분은 여전히 나타나는 등 북한체제 특성과 국가보안법의 존속에 따라 새로운 레퍼토리의 대안에는 여전히 어려운 점이 존재했다. 북측은 사전협의에서 출연자, 레퍼토리 등 상세히 공개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 등 과거 공연교류 준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다.

출연자 측면에서는 당시 북한의 대표 악단이라 불리는 ‘국보급악단’ 소속 구성원들을 모아 새롭게 창립한 삼지연관현악단이 출연하였다. 삼지연관현악단의 인원구성, 의상, 레퍼토리 등을 살펴보았을 때 대내와 대외를 차별화하여 구성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신생악단의 창립을 통해 북한 당국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국면전환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남측 방북공연 배경의 특징으로, 북측 방남 공연 이후 답방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당시 급변하는 남북 관계 및 정치적 사안에 따라 급박하게 행사가 추진되어 공연 기획과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레퍼토리 측면에서는 공연취지와 상징에 맞는 대표곡들을 선곡하였고, 북측 방남 공연과 연결성을 가지고 레퍼토리를 구성하였다. 북측이 불렀던 남한노래를 답가형태로 원곡 가수가 부르는 등 다양한 구성방식을 통해 교류공연의 의미를 더했다.

출연자 측면에서는 과거 전통음악 위주의 공연에서 대중음악 중심으로 공연 기획이 변화함에 따라 공연 주체도 대중가수로 변화하였고, 방북 공연 경험이 있는 가수들을 재출연시키며 과거진행된 공연과의 연속성을 부여하였다. 또한 북한 내 한류를 감안하여 관련 출연자들을 섭외하는 등 제한된 시간 내 교류공연의 의미와 공연의 연속성을 담으려는 시도가 엿보였다.

남북음악공연 교류는 여전히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한반도 정세의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여전히 불안정하고 지속성을 가지기 힘들다. 그간의 음악공연교류들은 준비시간의 부족, 국제정세 및 정치와의 연계성, 정부주도의 이벤트성 일회성행사로 진행되어온 측면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번 공연은 제한된 상황 속에서 음악의 변화를 반영하고 다양한 교류의 의미를 찾기 위한 노력들이 나타났다. 공연의 성과는 다양한 대중가요가 남북공연 무대로 활용되었다는 것이다. 과거 남북 음악공연교류에서 대중가수들의 선곡은 정치성에 위배되지 않는 내용 중 자신들의 대표곡 위주로 선곡하여 곡의 내용은 남북 음악공연교류의 의미를 담지 못했다면, 2018년 교류공연에서는 대중가수들의 대표곡 중에서도 교류의 의미를 넓은 범위에서 해석할 수 있는 곡들로 선정하며 남북관계 관련 키워드를 새롭게 해석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었다.

그간의 남북 음악공연 교류가 진부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음악 교류를 단순히 이벤트성 공연으로만 생각하여 공연 이후의 다음 공연에 대한 진지하고 깊은 고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간의 촉박했던 음악공연교류 경험을 비추어본다면, 정례공연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공연기획 및 구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되었어야 했다. 또한 북한체제 특성과 북한 음악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남북 교류공연을 기획할 만큼 이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각도에서의 연구와 논의들이 부족하기도 했다. 통일의 인식이 바뀌었다면 통일노래에 대한 의미와 메시지도 바뀌어야 한다. 변화한 통일인식, 통일의 의미와 같이 음악공연교류에도 새로운 포맷과 메시지, 그에 따른 레퍼토리의 발굴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준비하기에 남북문화예술교류센터와 같은 다양한 연구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남북 문화예술교류의 종합 공간인 교류센터의 설립은 과거 교류와의 지속성과 함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선행연구들에서도 남북의 정치 상황에 종속된 음악교류에 따른 공연 준비시간의 부족과 이벤트성 교류, 레퍼토리의 제한 문제 등 정부주도 공연의 현실적 어려움들을 지적하였다.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환경과 남북관계 특성을 인지하고 향후 있을 남북공연에 대비해 사전에 다양한 시나리오에 맞춘 구성과 기획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레퍼토리 구성에서는 현 세대들의 관심사와의 연계가 필요하며,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이러한 남북음악교류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특성을 파악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발굴한다면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보다 질적으로 발전된 공연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2018년 남북 음악공연교류를 중심으로 과거 음악교류 양상과 함께 음악교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 시론적 차원의 기초 연구이다. 향후 이와 같은 연구가 다양한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남북 음악교류 시 레퍼토리 선정에서 생길 수 있는 충돌을 줄일 수 있다. 과거 음악교류 평가를 통해 북한의 음악정책 및 음악의 특징을 고려하여 남북이 허용하는 수준의 레퍼토리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음악교류 시 레퍼토리로 인한 다소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충돌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이는 과거 북한음악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정 또는 협의된 레퍼토리로 공연이 무산되거나 또는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친 과거의 사례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으며, 북한과의 이해관계가 통하면서도 각 측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레퍼토리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새로운 남북 음악공연교류의 레퍼토리와 방향을 제시함으로

써 과거 답습했던 남북음악교류의 전형적인 레퍼토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음악교류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북한 음악정책의 특성을 고려한 레퍼토리 선정을 통해 북한음악의 특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남북 음악교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레퍼토리를 선정할 수 있다. 북한은 노래 제목과 가사에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노래의 창작 배경에서 다양한 상징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고, 기악곡의 경우 가사가 없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레퍼토리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 구축이 필요하다. 새로운 레퍼토리를 발굴함으로써 변화한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하고 남북 음악공연 교류에 새로운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셋째, 새로운 레퍼토리와 음악공연 교류 방향성 연구를 통해 변화된 북한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남북의 새로운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북한음악의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편견 등의 문제에서 변화된 북한 음악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향후 다양한 측면에서의 남북 음악교류 연구를 통해 시대변화에 따라 남북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레퍼토리와 음악 교류의 방향성을 모색한다면 보다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남북 음악공연교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4. 「조선음악년감(1992)」, 문학예술종합출판사.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1. 「조선음악년감(2000)」, 문학예술종합출판사.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2003. 「남북한 공연예술의 대화」, 시공아트.

2. 논문

- 노동은. 2002. 「남북 공연분야의 교류와 현황」 『민족발전연구』 7,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63-73.
- 민경찬. 2000. 「남북한 음악교류의 현황과 미래」 『한국전통음악학』 1, 한국전통음악학회: 329-339.
- _____. 2018. 「21세기 북한의 음악」 『한국예술연구』 22,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5-28.
- 배인교. 2018. 「남북한 음악교류의 양상과 방향」 『통일과 평화』 10(2),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39-80.
- 이우영. 2018. 「남북정상회담과 사회문화교류」 『통일정책연구』 27(1), 통일연구원: 47-64.
- 조정아. 2018. 「2030 세대의 통일 의식과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통일교육연구』 15(2), 통일교육학회: 21-45.
- 최명경·조광민·박상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의 이슈지각 정도에 따른 군집유형 분석」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23(2),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83-96.
- 하승희. 2019. 「북한의 악단 변화연구(1945~2018)」.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9.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방남 공연에 대한 인식 유형 연구: Q방법론적 접근」 『북한연구학회보』 23(2), 북한연구학회: 413-437.

3. 기타

박상현. 2018년, 4월, 1일. <오늘 평양서 13년만에 남한 예술단 공연 ... '봄이 온다'>, 연합뉴스,

박상현. 2018년, 4월, 3일. <평양서 두 번째 '봄이 온다' 공연 ... 남북 예술단 한 무대에>,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0402185600005>

유튜브 「11:50 청와대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Hk09vB7sQI>, 2018년 2월 12일.

통일부,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남북협력기금지원(안) 3건 의결」 보도자료. 2018.4.20.

한국리서치. 2018. 「국회 정거여론조사(1월): 평창올림픽 및 남북관계 관련 여론조사」.

CBS, 2018년 4월 5일. 「김현정의 뉴스쇼」,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122_0000209976&cID=10701&pID=10700

JTBC뉴스, 2018년 4월 9일. 「인터뷰: '평양 3박4일 이야기' 윤상 음악감독」, YTN, 2018년 4월 26일. 「[정상회담 D-1] 가수 알리에게 듣는 평양 공연 뒷이야기」.

安来節 世界の民謡童謡 <http://www.worldfolksong.com/songbook/japan/minyo/yasugibushi.htm>

<조선과 로씨야 두 나라 인민의 친선의 정을 힘있게 과시>, 로동신문, 2015년, 9월, 2일.

2018 Inter-Korean Music Exchange Analysis

Ha, Seung Hee

(Dongguk University, The Institute of North Korean Studies /Research Fellow)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music exchange of South-North and seek for new possibilities through the evaluation of the significant flow of the music exchange of South-North as it has been progressed to the present time with the focus on the performance of the recent music exchange of South-North in 2018.

Notwithstanding such fact, it is important to have the effort to re-iterate the South-North relationship by facilitating diverse popular music and selecting songs that may be construed under a broad spectrum for the implication of exchange. There is a need for new format and message as in the changed perception on unification and its implication, as well as the discovery of ensuring repertoires. And preparation of an exchange center as the comprehensive space for the exchange of culture and art by South-North to implement various studies and education, such as South-North Culture and Art Exchange Center for preparing such a process would be the starting point to seek for possible development along with the continuity with the endeavors in the past exchange.

Key words: Inter-Korean Social and Cultural Exchanges, North Korean music, The Inter-Korean Summit, Samjiyon Orchestra, Olympics

논문 투고일: 2021년 4월 22일

논문 심사 완료일: 2021년 5월 13일

논문 게재 확정일: 2021년 5월 15일